



# Russia · 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 Article

### 러시아의 대유럽 PNG 천연가스 시장 공략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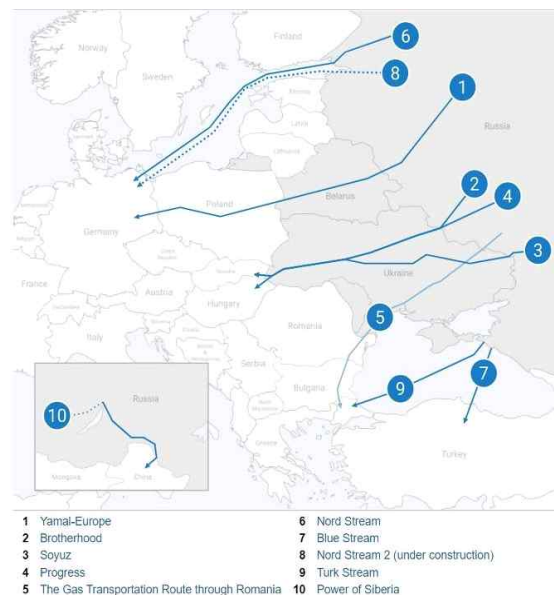
김정환

박사수료, 러시아 · CIS 경제 전공  
jeon\_kim@ymail.com

#### 러시아, 유럽 PNG 공급시장을 들어준다

러시아는 오랜 기간 유럽의 중요한 천연가스 공급자였다. 1968년 오스트리아에 PNG(Pipeline Natural Gas) 형태의 천연가스를 처음으로 수출한 이후, 세계 최대 PNG 수입국 독일에게도 가스를 공급하면서 유럽의 핵심 PNG 공급기지 역할을 수행해왔다.

러시아는 첨예한 냉전시기에도 정치적 이념과는 별개로 유럽의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공헌을 한 국가였다. 그런데 냉전기에도 발생한 적이 없던 러시아-유럽 간 천연가스 공급문제가 소련의 해체이후 발생한 것이 자못 흥미롭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러시아가 유럽 운송 가스관 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던 경유국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 PNG 수출경로 (출처: 가즈프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가스분쟁 발생 이전부터 경유국 우회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자국의 천연가스를 소비지에 직접 공급하는 다양한 루트 개발을 통해 '경유국 리스크'(transit risk)에 대비를 해왔다.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경유국 우회 경로(diversionary route)는 블루스트림(Blue Stream), 노드스트림(Nord Stream), 터키

스트림(TurkStream)이 있으며 독일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노드스트림-2(Nord Stream-2)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유국 우회 경로(diversionary route) 구축은 단순히 리스크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전략적 포석을 담고 있다.

## 우크라이나 우회 신규 PNG 루트 구축의 전략적 의미

첫째는 경제적 수익의 확대이다. 경유국을 우회하는 방식을 통해서 러시아는 경유국과 공유했던 경제적 잉여를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다. 러시아에게 경유국은 천연가스 유럽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였고, 경유국은 자신의 역할 수행에 따른 권리를 주장해왔다. 말하자면 통과료 수입 획득권을 가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로 대표되는 러시아 천연가스 경유국들은 경유 수수료를 수취했을 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었다. 러시아가 운송단계에서 경유국을 배제시키거나, 경유국 의존도가 낮아진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 경우 러시아는 경유국에 대한 통과료 지불액과 천연가스 가격 할인 폭이 감소할 것이며, 생산된 천연가스를 시장가격(혹은 시장가격과 가깝게)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동일한 양의 천연가스를 판매하더라도 더 많은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실제로 러시아는 블루스트림과 노드스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던 천연가스 가격 할인폭을 점차 감소시켰다.



터키스트림 해상구간 파이프라인 설치하는 선박 Audacia (출처: 가즈프롬)

둘째는 유럽 PNG 시장 지배력 강화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공급자 러시아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천연가스는 생산국가별로 다소간 열량 및 성분 차이가 존재하나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재화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천연가스는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신규 LNG 거래참여국가는 천연가스라고 하는 동일한 재화를 수입하기 위해 재기화 설비 및 터미널 건설 등과 같은 높은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감내해야한다. 따라서 PNG를 통한 천연가스 수입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는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LNG거래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얻기 힘들다. 실제로 매년 80bcm이상의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유럽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 독일은 러시아 및 노르웨이로부터 PNG형태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사실상 LNG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날로 LNG거래가 확대되는 시장환경에서 언제까지 효과적일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유럽 천연가스 전체 수입물량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2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독일과 불가리아를 거점으로 하여 서유럽과 남부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다면, 러시아 천연가스는 유럽시장의 기초수요(baseload)를 담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유럽시장 천연가스 수출물량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PNG 운송 시스템 활용의 효율화 및 최적화이다.** 경유국 우회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수요지 인근 허브국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함에 따라 이미 구축된 천연가스 운송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드스트림과 마찬가지로 노드스트림-2도 독일로 연결될 것이며, 독일이 보유한 JAGAL 및 OPAL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국가로 송출될 것이다. 터키스트림의 경우 터키를 경유하여 불가리아 Strandzha-2로 공급이 된다. 이 경우 러시아는 신규 천연가스 분배망 건설 없이 유럽 PNG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말하자면 천연가스 역류공급(reverse flow) 방식을 통해 Trans-Balkan Pipeline(TBP)과 같은 기(既) 존재하는 천연가스 운송자산을 활용하여 남유럽제국(諸國) 등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러시아는 수출 거점 국가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부수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의 신규 PNG 건설 배탕에 대한 전망

러시아의 대 유럽 PNG 수출 전략이 날로 LNG거래가 확대되는 시장환경에서 언

제까지 효과적일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유럽 천연가스 전체 수입물량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20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독일과 불가리아를 거점으로 하여 서유럽과 남부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러시아 천연가스는 유럽시장의 기초수요(baseload)를 담당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러시아의 유럽시장 천연가스 수출물량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발행인 ■ 홍완석 편집인 ■ 김민식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TEL ■ 02-2173-2556

홈페이지 ■ [ruscis.hufs.ac.kr](http://ruscis.hufs.ac.kr)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메일 ■ [dracs@hufs.ac.kr](mailto:dracs@hufs.ac.kr)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hufsrussiacis/>